

2025 수능 대비 신유학(新儒學) 완전 정복

1.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치지(致知)는 본심의 앎이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 본디 전체가 지극히 밝은데 어둠에 가려졌을 뿐이다. 일마다 각각의 이치를 힘써 배우고, 그것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밝아질 것이다.
 을: 치(致)는 이른다[至]는 뜻이다. 『주역』에서는 “지향할 바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지향할 바를 아는’ 것은 지(知)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은 치(致)이다. 치지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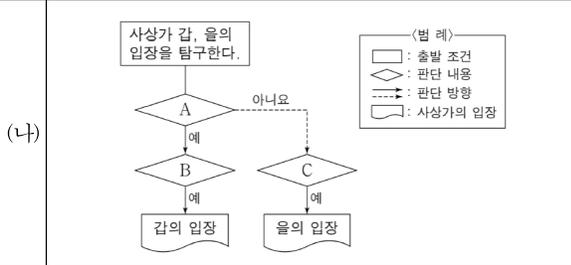
<보 기>

ㄱ. 갑: 격물(格物)과 치지는 병행해야 하는 별개의 공부이다.
 ㄴ. 을: 자신의 준칙인 양지에 따라 행동하면 악을 제거할 수 있다.
 ㄷ. 갑과 을: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욕을 극복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성(性)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측은(惻隱)과 사손(辭遜)의 네 가지 단서[四端]를 통해 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단서는 정(情)이고, 성은 곧 이치[理]이다. 발동한 것은 정이고 그것의 근본은 성이다.
 을: 성 밖에는 이치가 없고, 성 밖에는 사물[物]이 없다. 학자들은 이치와 사물을 외부의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것이 의(義)를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자의 이론과 같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학문이 밝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보 기>

ㄱ. A: 마음 밖에 모든 이치가 존재하므로 사물의 이치 탐구가 필요한가?
 ㄴ. B: 마음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정감(情感)과 행동을 주재하는가?
 ㄷ. B: 마음은 성과 정을 겸하고 본체(體)와 작용(用)을 갖추었는가?
 ㄹ. C: 마음이 발한 의념(意)의 작용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理) 자체에는 작용[用]이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러 하여[自然] 양(陽)과 음(陰)을 낳는다. 이가 발하면 기(氣)가 따르고,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을: 이와 기를 둘로 하려는 자는 도(道)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이므로 기가 동(動)하지 않았는데 이가 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 기>

ㄱ. 갑: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감정은 본래 순진하다.
 ㄴ. 을: 기질지성이 바깥 사물에 감응함으로써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ㄷ. 을: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지만[無形]자발적으로 동정(動靜)한다.
 ㄹ. 갑과 을: 본연지성은 사덕(四德)을 갖추고 있는 순수한 이치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다음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을에 사는 불효자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를 효자라고 칭찬해주면 좋아한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효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의 성은 선(善)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선으로 길러나 가면 호연(浩然)하고 강대해지며, 선으로 기르지 않으면 수척하고 쇠약해진다. 도를 지향하며 수신(修身)하는 것이 사람의 본연이다.

- ① 사람은 이법적 실체로서의 본성이 없지만 선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선한 기호의 본성을 따르고 악한 기호의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
 ③ 사단(四端)을 심(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덕(德)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형구의 기호를 따르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
 ⑤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을 확충하면 예법을 행할 수 있다.

2025 수능 대비 신유학(新儒學) 완전 정복

정답 및 해설

1	2	3	4
④	⑤	④	②

1. 주희와 왕수인의 수양론 이해

같은 주희, 읍은 왕수인이다.

<정답 해설>

- ㄴ. 왕수인은 양지가 자신의 준칙이며, 양지는 속일 수 없기에 양지를 속이지 않고 양지에 의지해서 실행한다면 선을 간직하고 악은 제거될 것이라고 보았다.¹⁾
- ㄷ. 주희와 왕수인 모두 존천리거인육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인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오답 해설>

- ㄱ. 주희는 격물과 치지는 별개의 공부가 아니라고 보았다.²⁾ 주희에게 치지는 격물의 목적이자 결과이다.

2. 주희와 왕수인의 심성론 이해

같은 주희, 읍은 왕수인이다.

<정답 해설>

- ㄴ. 주희는 마음[心]이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그것을 주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³⁾, 또한 시청언동(視聽言動)과 출처어묵(出處語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도 심의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주문공문집』 中)
- ㄷ. 주희는 마음이 성과 정을 겸하며,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았다.⁴⁾ “성정을 겸하고 체용을 갖춘 것은 심이다⁵⁾”(『주문공문집』 中)
- ㄹ. 왕수인은 마음이 발한 것이 의념이고, 의념이 있는 곳이 물(物)이라고 보았다.⁶⁾ 또한 왕수인은 의념[意]이 작용하는 데에는 필히 그 대상[物]이 있고, 그 대상은 곧 사(事)라고 보았다⁷⁾(『양명전서』 中).

<오답 해설>

- ㄱ. 주희와 왕수인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주희는

1) 曰爾那一點良知是爾自家底準則 爾意念着處他是便知是非便知非 更瞞他一些不得 爾只不要欺他 實實落落依着他 做去 善便存 惡便去 - 『전습록』 中
 2) 但能格物則知自至 不是別一事 - 『주문공문집』 中
 3) “心者 人之所以主于身者也”, 2025 수능특강 21p 7번 문제에서도 ‘행함을 주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4) 2025 수능특강 21p의 5번 문제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얻었다.
 5) “統攝全體用者 心也”
 6) 2025 수능특강 21p 8번 문제 제시문
 7) “意之所用必有其物 物即事也”

사물의 이치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마음에도 이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왕수인은 심외무리를 주장하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3.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

같은 이황, 읍은 이이이다.

<정답 해설>

- ㄱ. 이황은 사단이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四端理發而氣隨之] 감정이며, 사단은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⁸⁾
- ㄴ.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감정이란 성이 외물(外物)에 감응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⁹⁾. 그런데 이이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성은 기질지성이므로, 기질지성이 외물에 감응하여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¹⁰⁾
- ㄹ. 이황과 이이 모두 성리학자로서 본연지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이치이며, 인의예지의 사덕(四德)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ㄷ. 이이는 이는 무형무위(無形無爲), 기는 유형유위(有形有爲)이므로 기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4. 정약용의 심성론 이해

제시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답 해설>

- ②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이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기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¹¹⁾

<오답 해설>

- ①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이법적 실체인 이(理)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성기호설을 주장하면서, 자주지권을 통해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사단을 심(心)이라 할 수 있지만 성(性)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심이라 할 수 있으나 이(理)라고는 할 수 없고, 심이라 할 수 있지만 덕(德)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²⁾
- ④ 정약용은 하늘[天]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8) 2025 수능특강 28p 퇴계집 원문 참조함
 9) “所以外面纔感 中間便應 如赤子入井之事感 則仁之理便應 而惻隱之心于是乎形 …(중략)… 蓋由其中間衆理渾具 各各分明 故外邊所遇 隨感而應” - 『주문공문집』 中
 10) 2025 수능특강 35p 3번 문항 ㄷ선지 참조함
 11) 2025 수능특강 34p 2번 문제 참조함
 12) 『맹자요의』 中

2025 수능 대비 신유학(新儒學) 완전 정복

행하기는 쉬운 형구를 부여했다고 보았다.¹³⁾

- ⑤ 정약용은 사양지심(辭讓之心)이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사양지심을 끌어내어 키우면 예법을 행할 수 있으므로 사양지심이 예법의 시작이 된다고 보았다.¹⁴⁾

13) 又予之以難善易惡之具 - 『여유당전서』 中, 2025 수능특강 35p 3번 문제도 참조함.

14) 2025 수능특강 34p 2번 문제 제시문 참조함